

## 제 1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0 일 시 : 2014년 9월 3일(수), 15:30

0 장 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7층 대회의실

0 위원 총수 : 7인

0 출석위원수 : 7인 (전원참석)

0 의 안

1. 위원장 선출
2. 후보자 모집방법 결정
3. 후보자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 결정

0 회의 전말

1. 위원장은 위원을 선출함
2. 후보자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추천방식 병행
3. 응모자 자격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 포괄적 요건으로 함
4. 응모방법
  - 추천의 주체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모두 가능
  - 추천을 받으면서 피추천자의 동의서와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토록 함
  - 지원서 접수기간은 9월 4일 ~ 9월 12일 18시까지
  - 접수방법은 직접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주요경력증명서
  - 공고문에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임이 취소될 수 있다는 문구 삽입
5. 공고 : 1개 일간지와 공사,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 게재
6. 심사항목, 방법
  - 심사항목
    - 경영 및 방송 · 광고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이해
    - 공사의 공익성과 미션, 비전에 대한 이해도, 실행의지 및 역량
    - 사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 직무수행계획의 타당성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각 항목별 25점 배점(총 100점)
  - 평가배점은 5단계로 설정(A~E, 25점 ~ 13점 / 3점 간격)
  - 총점 490점 미만은 과락 인정
- 2차 평가는 1차 평가 점수와 상관없이 제로베이스로 결정
- 동점자처리와 면접대상자 및 최종추천자 선정은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 토론을 거쳐 결정
-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최고점과 최저점 배제 등의 점수조정은 하지 않기로 함

위 결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석위원은 서명 날인함.

2014년 9월 3일

간 사 :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간사를 맡은 경영관리국장 입니다. 이번 임추위는 임기가 만료된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33차 이사회 의결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임추위 위원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앞서 정부 지침에 의거, 임추위 승낙서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 : (승낙서 서명)

간 사 : 서명을 하셨으면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공사 임추위 규정에 따르면 비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 어제 이사회에서 위원님을 선임 비상임이사로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간 사 : 그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각 위원 : 동의합니다.

간 사 :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자리를 위원장 석으로 옮기시겠습니다.

위원장 : 오늘 첫 회의인 관계로 본 위원회가 구성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사회에서 추천위원을 7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모든 심의사항이 의결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각각의 의결사항들을 기존에 실시했던 방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의가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이전 방식을 정리했으니 검토하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먼저 모집방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공개모집과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두 가지 방법 중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각 위원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봉) 그럼 다음으로 응모자 자격요건에 대한 결정입니다. 자격요건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나와 있는 포괄적 자격요건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봉) 다음으로 응모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을 병행할 경우 추천방식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추천의 주체는 개인, 기관, 단체 모두 가능하게 하였고, 추천방법은 추천을 받으면서 피추천자의 동의서와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출서류 접수방법은 직접 본인이 접수하거나 동기우편으로 하고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하였습니다. 제출서류는 정부지침에 의거해서 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주요경력과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경력증명서와 학부를 포함한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고서에 결격사유를 명시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결격사유를 공고문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결격사유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 간사가 설명해주세요.

간 사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결격사유 관련 내용 읽음)

위원 : 최종학력증명서는 요즘 받지 않는 추세인 것 같은데, 꼭 필요한가요?

간 사 : 지난 임추위에서는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원 :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학력증명서를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지원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문제가 될테니까 굳이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 동의합니다. 공모기간 중 추석연휴가 있어서 학력증명서까지 준비하기에 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학력증명서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요즘은 동사무소에서도 학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원 : 해의학위의 경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위원 : 허위로 기재하게 되면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굳이 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 사장에 지원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경력으로 증명이 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위원장 : 다들 의견이 그러하시면 최종학력증명서 제출은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발각될 경우 선임이 취소될 수 있다고 공고문에 문구를 넣는 걸로 하시지요.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타봉)

다음으로 공고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는 법에 따라 1개 이상의 일간지와 해당기관,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안전행정부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모집기간은 1주 이상으로 되어있으며, 일간지의 결정은 실무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 1개 일간지에만 공고를 내면 못 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일간지에 공고를 내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을 텐데요.

간 사 : 여러 일간지에 공고를 내기에는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요즘은 관련부처 사이트에 공고문이 올라갑니다. 공사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방통위, 안전행정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 일간지 결정은 이전 방식대로 실무진에 위임하면 되지만 모집기간은 저희가 결정을 해야겠네요.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 실무진의 의견이 있습니까?

간 사 : 모집기간 및 향후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9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모집을 하고, 9월 15일에 서류심사, 9월 16일에 면접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실무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1주일 이상으로 하도록 공사 임추위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 그럼, 2014년 9월 4일부터 12일까지를 모집기간으로 하고, 일간지 선정은 실무자에 위임한다고 의결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 모집기간에 추석연휴가 포함되어 있는데, 괜찮을까요?

위원 : 법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모집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처럼 모집기간 중간에 휴일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됩니다.

위원장 : 연휴기간에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항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 : 추석 연휴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 혹시 문제의 소지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위원 : 모집기간이 짧으면 실무진도 힘들 텐데 기간을 늘릴 수 없습니까?

간 사 : 공운위 일정을 맞추려고 하신다면 길어도 하루 정도 늘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17일에 면접심사를 하고 난 뒤 바로 18일에 공운위가 열리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위원 : 위원장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일정을 놓치면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 추석연휴에 지원하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가 되신다면 대체휴일인 10일에는 접수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 혹시라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려가 되어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위원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위원님께서 처음에 제안하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타봉)

위원장 : 다음으로 전형절차와 심사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의논하겠습니다.

전형절차는 기존에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기준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경영 및 방송·광고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 및 이해' 등 4가지 항목으로 하였습니다. 심사는 평가표에 의거하여 채점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면접대상자 및 최종 추천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차평가는 1차평가 점수와 상관없이 제로베이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전 임추위 시 심사 평가표 상 항목별 점수의 편차는 3점이고 과락은 총점 490점 미달 시로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최고/최저점 배제 등의 점수조정은 하지 않았으며, 동점자 처리, 면접대상자 선정 및 최종추천자 선정 인원 결정 등은 심사결과를 보고 위원회에서 의논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실무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심사기준 및 방법과 관련하여 직전 임추위에서 추가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간 사 : 안내자료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존에는 항목별 점수폭이 2점이었습니다만 직전 임추위에서 편차를 3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락 기준을 총점 490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위원 : 과락 기준을 왜 설정했습니까?

간 사 : 총점 490점이면 평균 70점을 의미합니다. 지난 임추위에서는 평균 70점이 안되는 분은 기준에 미달된다고 봐서 과락을 설정했었습니다.

위원 : 제가 직전 임추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점수 편차를 2점으로 해서는 지원자간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폭을 넓히자는데 다들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코바코의 사장으로 오실 분이 낙제점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최소한 70점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의미에서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 : 다른 기관은 과락이 60점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이라서 70점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 보통 60점을 과락기준으로 삼는데, 70점은 조금 높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지원자 전원이 과락이 되면 어떡합니까?

위원 : 코바코 사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70점 정도로 과락을 설정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 지금까지 이 평가표로 몇 번이나 공모를 진행해봤습니까? 충분히 검증이 된 것입니까?

간사 : 직전 임추위에서 점수폭판 바뀌었습니다. 평가항목 자체는 지금까지 계속 동일하게 사용했었습니다.

위원장 : 그럼 상당히 검증을 거쳤네요.

위원 : 결국 임추위의 권한을 늘린 거네요. 3점으로 편차를 늘리면 지원자간 변별도 생기고 또 과락을 시키는 권한도 생긴 것이고요.

위원 : 아무래도 점수 차이가 크게 나면 추후 추천자 논의에 영향을 주게 되겠지요.

위원 : 편차가 커지다보니 최종점수가 예전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기존 방식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타봉)

사장 공모의 경우 추천대상자와 기관장 경영계약서 내용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임명권자인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결정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에게 경영계약서(안)을 이메일을 보내 검토하도록 한 뒤 동의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방식을 채택할 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위원 : 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타봉)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2차 임추위는 지원서 접수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일정을 정하겠습니다.

위원 : 아까 논의된대로 향후 일정을 진행하시죠.

간 사 : 참고로 말씀드리면, 면접심사 시 1인당 면접시간을 20분~3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안해서 회의시간을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 기관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공운위 일정에 맞춰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만 비판적인 사람들은 너무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코바코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언론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주시하는 곳인데, 너무 촉박한 일정으로 사장을 선임한다고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 : 사장 추천이 한번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에 공백이 긴 상황입니다. 사장이 빨리 선임된다고 비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빨리 선임되는 것이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 저도 공백기간은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 저희가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선정해서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한다고 해도 비난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 각자 스케줄을 말씀하시지요.

위원 : 저는 15, 16일 모두 오후가 좋습니다. 3시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 : 그럼 저는 15일 참석이 힘들 것 같습니다. 강의를 있습니다.

위원 : 한분이 불참해도 괜찮습니까?

간 사 : 네.

위원 : 15일에 서류심사를 해서 면접인원이 확정되면 16일에 있을 3차회의 일정을 확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 그럼 2차회의는 9월 15일 오후 3시로 정하고, 3차 회의는 잠정적으로 9월 16일 3시로 정하겠습니다. (의사봉 타봉)

위원 : 승낙서를 보면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친인척 관계가 아니더라도 지인이나 친구가 오면 회피를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회피를 신청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간 사 : 지원접수가 마감되면 지원자 명단과 함께 제출서류 사본을 위원님들께 보내드립니다. 그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척과 회피관련 규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읽음)

위원 :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네요.

위원 : 그런데 친구나 지인은 제척이나 회피 사유가 안 되는군요.

위원 : 친구의 경우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척이나 회피를 안 한다고 해도 제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장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타봉)

kobaco